※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며,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대 검 찰 청

대변인실 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4

보 도 자 료

2024. 9. 27.

자료문의 : 대검 형사선임연구관실
전화번호 : 02-3480-3425
주책임자 : 형사선임연구관

제 목 | **'24년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**

● 대검찰청은 '24년 8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을 『국민을 섬기는 검찰』 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였음(※ 상세내용 별첨)

①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**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사건**에서, 검찰은 **사건 발생 당일부터 전담 수사팀을 구성**하고 **사경과 적극 협력하여 충실한 증거 수집**이 이뤄지도록 하고, 송치 후 **대검 자동차 포렌식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차량 실험**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, **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구속 기소**한 사례 [서울중앙지검]

②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온 피의자에 대하여, **별개 사건으로 고소되어 산재된 여러 사건들을 병합**한 후 카카오톡 등 메시지 및 녹취록 분석, **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규명하여 구속영장을 청구**하고,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도주한 피의자를 자유형 **미집팀과 협업하여 3주만에 직접 검거·구속**하였으며, 피해자들에 대한 **보복협박까지 입건하여 구속 기소**함으로써 피의자를 엄단하고 추가 피해발생을 방지한 사례 [서울중앙지검]

③ 말아서 세워놓은 운동용 매트 안에 태권도장 관원인 **피해 아동을 거꾸로 밀어 넣은채 방치해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**에서,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수사와 다각적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**살해 고의를 규명**하고, 피고인의 **추가 학대사실을 확인**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어 피고인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충실히 한 사례 [의정부지검]

④ **소위 '사이버렉카' 유튜버 등이 유명 여성 유튜버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건**의 고소장이 접수되자, **신속히 전담 수사팀을 구성**하여 전국 청에 산재되어 있던 **관련사건을 이송**받아 **압수수색, 모바일 포렌식 분석 등 충실한 직접수사**를 통해, 피고인들이 **범행대상을 사전에 물색하고 모의하여 저지른 조직적·계획적 범행의 실체를 규명**하여 **피고인 4명을 직접 구속**하고 **총 5명을 기소**함으로써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을 엄단한 사례 [수원지검]

⑤ **약 210억 원 상당의 상가 분양 사기 사건**이 **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송치**되자, **피고인들 압수수색, 피해자 전수 조사 등 면밀한 재수사**를 통해 피고인들이 의사면허증을 무단 도용하여 **상가에 병원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**한 뒤 이를 **이용**하여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약 2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의 **전모를 규명**하고, **배후에 있던 공범 2명을 추가 입건하여 총 4명을 직접 구속 기소**함으로써 서민다중 피해사범을 엄단한 사례 [대구지검]

■ 첨부 : 우수 수사사례 선정 내역

<table>
<tr><th>순번</th><th>소 속
부 장
주임검사</th><th>우수 수사사례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1</td><td>서울중앙지검
형사제5부</td><td rowspan="3">【직접수사, 정성처리】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사건에서,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경과 적극 협력하여 충실한 증거 수집이 이뤄지도록 하고, 송치 후 대검 자동차 포렌식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, 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구속 기소한 사례

사안 개요
○ ’24. 7. 1. 21:2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 12명 및 승용차 2대를 순차로 충격함으로써,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게 함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·치상)]

선정 이유
○ 사건 직후 전담수사팀 구성, 검·경 협력하여 충실한 증거수집
- 검찰은 사건 발생 즉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급발진 주장 유무죄 사례들을 분석해 초기부터 탄탄한 증거수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직접 참석하여 구속 사유를 소명함
○ 검찰 직접수사로 가속페달 오조작 사고임을 명확하게 규명
- 대검 자동차 포렌식,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, 본건 사고의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명확히 규명

▲ 국과수 사고차량 실험 및 감정결과 : 진공배력장치 미작동 상황에서도 제동페달에 작은 답력만 작용되도 제동등이 점등됨을 확인,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페달이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(사고 당시 제동페달을 밟았다는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 없음을 확인)
▲ 대검 자동차 포렌식 결과 : 사고차량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·속도가 사고기록장치,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분석과 일치

○ 피고인이 급발진 사고임을 주장하여 사고 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, 적극적 초기 대응과 충실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구속 기소한 우수 사례</td></tr>
<tr><td>김태헌(35)</td></tr>
<tr><td>이세종(38)
박중화(42)</td></tr>
</table>

순번	소 속 부 장 주임검사	우수 수사사례
2	서울중앙지검 형사제7부 권성희(34) 이진희(40)	**【직접수사, 정성처리】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온 피의자에 대하여, 별개 사건으로 고소되어 산재된 여러 사건들을 병합한 후 카카오톡 등 메시지 및 녹취록 분석,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규명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,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도주한 피의자를 3주만에 직접 검거·구속하였으며,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협박까지 입건하여 구속 기소함으로써 피의자를 엄단하고 추가 피해발생을 방지한 사례** **사안 개요** ○ ’21. 6. ~ ’23. 6. 코인 투자금, 창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6명의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7,185만원을 편취**[사기]** ○ ’23. 1. ~ ’23. 6. 위 사기 사건의 목격자 2명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각 협박하고,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A를 협박**[특가법위반(보복협박등)]** **선정 이유** ○ 기존 사기 전과와 동일한 수법으로 2년여에 걸쳐 **피해자 6명을 순차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6억 7,100여만원을 편취**한 사기 사범을 **직구속하여 기소한 사안**으로써 피의자를 엄단하고, 본건 외 추가 사기 범죄 다수 있는 등 **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**함 ○ 별개 사건으로 경찰에 각각 고소되고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, 현금 수수, 텔레그램 사용, 타인 명의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으로 인해 장기간 **경찰의 수사가 진행**되었음 - 산재된 **사기 사건 4건을 재배당받는 등 병합**한 후 ▲피해자들·참고인들 전면 재조사, ▲카카오톡 등 메시지 및 녹취록 분석, ▲계좌추적 등을 통해 **사건을 유기적·종합적으로 파악**하고 **혐의사실을 명확히 하여 피의자를 직접 구속함** ○ 구속전피의자심문에 피고인이 **불출석 후 도주**하자 ‘공판과 자유형 검거팀’과 함께 스마트폰 앱 사용 내역 등 분석하여 추적하고 탐문을 실시하는 등 **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주 19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**함

순번	소 속 부 장 주임검사	우수 수사사례
3	의정부지검 형사제3부 오미경(35) 이경준(변8)	**【정성처리, 피해자보호·지원】 말아서 세워놓은 운동용 매트 안에 태권도장 관원인 피해 아동을 거꾸로 밀어넣은 채 방치해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,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수사와 다각적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살해 고의를 규명하고, 피고인의 추가 학대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어 피고인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충실히 한 사례** **사안 개요** ○ '24. 7. 태권도장 내에서, 손과 발로 피해 아동(남,3세)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 아동을 안아 약 60회 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한 후, 벽에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멍에 피해 아동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게 강제로 밀어 넣는 등 방법으로 학대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 **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]** **선정 이유** ○ **피해아동에 대한 중상해로 송치되었으나 송치 후 피해아동이 사망한 사건**에서, **아동학대 전담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적극적인 협력수사를 진행하고 다각적으로 보완수사 진행**한 결과 - 검사가 직접 검시 및 부검 지휘, 국과수 법의관 소견, 검찰 전문수사자문위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**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아동 사망 사이의 인관관계를 명확**히하고, - **참고인들을 전면 재조사**하고, **CCTV영상 등을 정밀 분석**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매트에 집어넣은 후 장시간 방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**피고인의 '살해 고의'를 입증**하고, 피해 아동에 대한 **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** 후 이와 관련한 **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**하여 **전문가 의견 청취** 후 **'아동학대살해죄'로 의율변경하여 피고인 구속 기소** ○ 또한 **피해 아동의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 등 절차를 함께 진행**하고, 이 사건 범행을 **목격한 관원들에 대해서도 심리치료 지원**하는 등 **충실한 피해자 보호·지원 실시**

순번	소 속 부 장 주임검사	우수 수사사례
4	수원지검 형사제2부 형사제5부	**【직접수사, 정성처리】 소위 '사이버렉카' 유튜버 등이 유명 여성 유튜버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자, 신속히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전국 청에 산재되어 있던 관련사건을 이송받아 압수수색, 모바일 포렌식 분석 등 충실한 직접수사를 통해, 피고인들이 범행대상을 사전에 물색하고 모의하여 저지른 조직적·계획적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여 피고인 4명을 직접 구속하고 총 5명을 기소함으로써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을 엄단한 사례** **사안 개요** ○ (피고인 A·B) '23. 2. 유명 여성 유튜버인 피해자에게 '탈세, 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다,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'는 취지로 겁을 주어 5,500만원 갈취 **[공갈]** ○ (피고인 A) '21. 10. 피해자에게 '네가 고소를 남발하여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'는 취지로 위협하고, '23. 5. '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 달라'고 요구하여 촬영 강제 **[협박, 강요 등]** ○ (피고인 C·D) '23. 2. 피고인 A에게 '피해자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'는 취지로 권유 **[공갈방조 등]** ○ (피고인 E) '23. 2.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공갈함에 있어 피해자의 탈세 의혹 및 사생활에 관한 민감정보 제공 **[개인정보보호법위반, 공갈방조 등]**
	정현승(34) 천대원(36)	
	한강일(39) 박재훈(40) 전원영(변5) 박현우(47) 조은정(변11) 구자빈(변12)	**선정 이유** ○ 소위 '사이버렉카' 유튜버 등이 유명 여성 유튜버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생활 등 의혹 관련 콘텐츠를 제작·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자, - **신속히 전담수사팀을 구성**하여, **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병합**하고 **압수수색, 모바일 포렌식 분석 등 충실한 직접수사**를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 - 고소장 접수 10일 만에 주요 가담자 피고인 3명을 직접 구속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였으며, 구속영장이 **법원에서 1차례 기각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추가 구속**하는 등 피고인 총 5명(구속 4명, 불구속 1명)을 **기소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을 엄단**한 사례

순번	소 속 부 장 주임검사	우수 수사사례
5	대구지검 형사제3부 남계식(35) 조현욱(46)	**【직접수사, 정성처리】 약 210억 원 상당의 상가 분양 사기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되자, 피고인들 압수수색, 피해자 전수 조사 등 면밀한 재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의사면허증을 무단 도용하여 상가에 병원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약 2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, 배후에 있던 공범 2명을 추가 입건하여 총 4명을 직접 구속 기소함으로써 서민다중피해사범을 엄단한 사례** **사안 개요** ○ (피고인 A) '20. 3. 의사 7명이 위 상가에 입점한다는 내용의 '임대차계약서'를 허위로 작성하여 분양 홍보에 활용하도록 제공 **[사문서위조 및 동행사]** ○ (피고인들) 공모하여, '20.3.~'21.11 의사면허증을 무단 도용하여 작성된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'전층 병원 입점 확정되어, 분양받을 시 투자금 대비 연 수익률 8%가 보장된다'라고 피해자 29명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210억 원 편취 **[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, 사기]** **선정 이유** ○ 피고인들이 '실제로 병원 입점 계약을 체결했었다'는 등으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**경찰에서 불송치 결정**을 한 이후 **고소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자,** - **고소인 29명·명의 도용 의사들 전수조사, 피고인들 압수수색** 등 **면밀한 재수사를 통해** 피고인들이 생면부지 의사들의 면허증을 무단 도용하여 상가에 병원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, 이를 활용해 **계획적으로 분양대금을 편취한 범행 전모를 규명하였음** - 아울러 고소되지 않았던 배후의 **공범 2명을 추가로 밝혀내어 피고인들 총 4명을 직접 구속 기소**함으로써 **서민다중피해사범을 엄단**한 사례